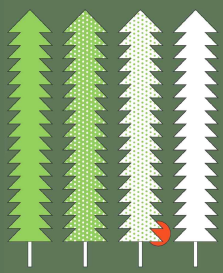
<생태로운 예술생활> 프로그램 소개

- 대상: 초등 5~6학년, 중학생
- 교육목표
  · 청소년의 경이로운 감수성 성장판 자극
  · 자연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감수성과 접목하여 자연탐구와 감성탐구 지능을 깨우기 위함
- 세부활동
  · (자연탐구) 자연이름으로 이름 짓기, 생태 의미 찾기
  · (감각열기) 빛그림, 숲에서 찾은 나의 소리, 숲에서 찾은 우리의 소리
  · (기질발견) 몸짓놀이, 몸짓 광합성, 반응하는 몸, 기억흔적
  · (감성탐구) 빛합성, 빛데이터 채집, 움직임데이터 채집



<생태로운 예술생활>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접목하여 **자연의 현존성, 디지털의 실시간, 예술의 즉흥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먼저, 자연의 현존성은 현재의 시간 X축과 공간 Y축의 좌표를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숲에서의 활동이 주가 됩니다.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활용하여 실제 자연(숲) 안에서 자연과의 교감과 유기적인 관계를 인식하도록 이끕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의 실시간은 디지털의 즉각적인 시간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실시간이며,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청소년에게 디지털 생태계는 제2의 자연입니다. 이들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 실시간 데이터 교환, 마이크로비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들은 청소년을 숲으로 불러들이는 매개체이며, 신체를 통해서는 쉽게 인식되지 않았던 감각을 깨우는 감성 탐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즉흥성은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단 한 번뿐인 창의적 활동을 가리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의 반복 재생성을 오히려 극복하는 지점이며, 틀에 박힌 흐름이 아니라 예측불허한 계획(contingency plan)을 반영함으로써 참여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자기 기질을 발견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모두를 통해 **<생태로운 예술생활>이 이루려는 목표는 '공존'을 위한 정서와 태도의 변화**입니다. 공존은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존을 위해서는 경이로운 감수성을 깨워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 회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회복됩니다. 자아존중감은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디지털 시대의 '고립된 개인'을 '협력하는 인재'로 이끄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공존'을 위한 정서와 태도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선택한 교육 제재는 '빛과 광합성'입니다. 빛과 광합성은 식물에 한정된 자연 요소와 원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에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며, 생명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온 전체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고, 식물이 없으면 식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즉, 빛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으며, 광합성이라는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관점에 인문적-빛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관점이 더해지고, 여기에 예술적-몸의 언어가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움직임이 광합성작용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임을 자각하는-관점까지 합쳐집니다.

<생태로운 예술생활>은 경이로운 감수성을 고취하기 위해 4단계 교육과정을 거치며, 자연 안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연스럽게 '너'를 이해하도록 하며, 협력하는 '우리'로 확장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단계	I	II	III	IV
차시	자연탐구(60′)	감각열기(60′)	기질발견(90′)	감성탐구(90′)
1	생태 의미 찾기	빛그림	몸짓 놀이	빛 합성
2	내가 발견한 생태	숲에서 찾은 나의 소리	몸짓 광합성	빛 데이터 채집
3		숲에서 찾은 우리의 소리	반응하는 몸	움직임 데이터 채집
4			기억흔적	